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제 ( ) 선택
----	-------	----------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 좋음, ' 옳음'과 같은 도덕적 용어들의 의미 분석과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적 분석에 주된 관심을 둔다.

(나) 윤리학은 도덕 이론과 원리를 적용하여,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둔다.

- ① (가): 다양한 문화권의 관행을 가치중립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 ② (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목적을 제공하는 것이다.
- ③ (나): 도덕 이론에 사용되는 명제의 논리적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다.
- ④ (나): 현실의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 ⑤ (가)와 (나):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도덕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다.

2.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생명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뇌 자극과 약물을 통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인간의 이타심을 향상시키는 강화도 가능해졌습니다.

을: 동의합니다. 인간의 이타심을 인위적 조작으로 강화함으로써 사회 이익에 기여하는 도덕적 행동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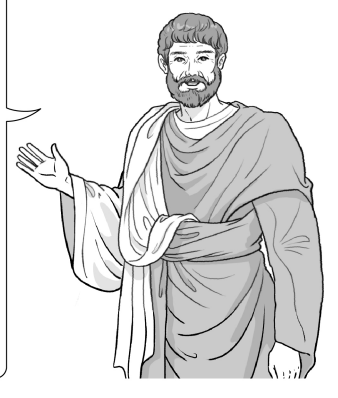
갑: 물론 이타심 강화에 의해 사회 이익에 기여하는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은 자극에 의한 타율적 반응일 뿐 도덕적 행동은 아닙니다.

을: 이타심 강화로 인해 증가한 친사회적 행동이 자극에 의한 타율적 반응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회 이익을 증진하므로 그러한 행동도 도덕적 행동입니다.

- ① 생명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질병 치료에 기여하는가?
- ② 강화에 의한 인간의 친사회적 행동은 도덕적 행동인가?
- ③ 인간의 이타심을 인위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는가?
- ④ 강화에 의한 인간의 친사회적 행동은 사회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가?
- ⑤ 강화에 의한 인간의 친사회적 행동은 자극에 의한 타율적 반응인가?

3.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인은 행위하는 인간을 모방하는데, 행위하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선인이거나 악인입니다. 인간이 거의 언제나 이 두 가지 범주에 속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덕과 부덕에 의해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모방된 인간은 필연적으로 우리 이상의 선인이든지, 우리 이하의 악인이든지, 우리와 동등한 인간입니다. 희극과 비극의 차이도 여기에 있습니다. 희극은 실제 이하의 악인을, 비극은 실제 이상의 선인을 재현합니다.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시인의 임무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법한 일을 이야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 ① 예술가는 악한 인간의 성품을 묘사해서는 안 된다.
- ② 예술 작품 속 인물에 대한 도덕적 구분은 불가능하다.
- ③ 예술 작품 속 인물이 현실의 인간과 유사할 수는 없다.
- ④ 예술가는 인간의 유덕함을 작품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 ⑤ 예술가가 개연성 없는 서사를 창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태초에 무언가가 섞이고 변하여 기(氣)를 얻었고, 기가 변하여 형체를 갖게 되었으며, 형체가 변하여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생명이 변하여 죽음에 이른다.

을: 늙음[老]과 병듦[病]과 죽음[死]을 떨쳐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세 가지의 법(法)을 끊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세 가지는 바로 탐욕[貪], 성냄[瞋], 어리석음[癡]이다.

- ① 갑: 죽음은 기가 흩어진 것이므로 운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② 갑: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초연해야 인륜의 도(道)를 완성할 수 있다.
- ③ 을: 죽음의 참모습을 자각하면 업(業)을 짓지 않고 윤회하게 된다.
- ④ 을: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삶과 죽음의 의존관계를 부정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도를 얻음으로써 생사(生死)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우주는 신들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들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예를 들면, 신의 현존에 의해서 정화된 장소나 사물에 머무르는 경우와 같이 신들과 직접 교류하는 신성성만은 아니다. 신들은 세계의 구조와 우주적 현상의 구조 그 자체 안에서 다양한 성(聖)의 양태를 현현(顯現)한다.

- ①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자연과 세계가 초월적 신 자체이다.
- ② 인간의 노력 없이는 세계 안에 성스러움이 존재할 수 없다.
- ③ 신이 창조한 세계는 실재하지 않지만 일정한 구조를 지닌다.
- ④ 종교적 인간은 신과 직접 교류함으로써만 성스러움을 느낀다.
- ⑤ 종교적 인간은 세속적 공간에서도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

## 2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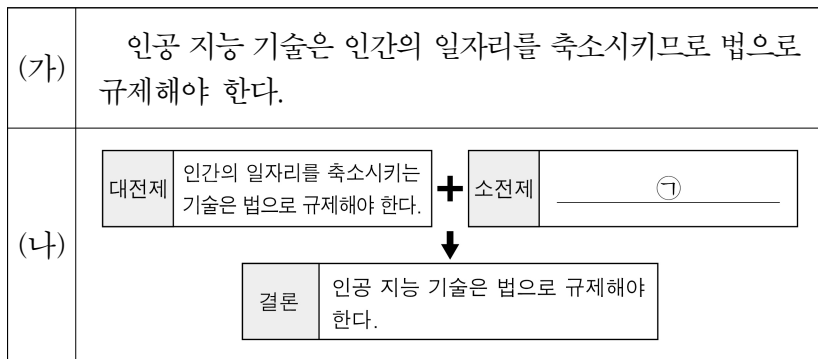
현대 기술이 지구 전역을 뒤덮고 있으며 그 누적된 결과가 미래 세대의 인류에게도 영향을 미치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특히 주목할 것은 미래 지구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의 일상적이고 실천적인 결단을 촉구한다는 사실, 그리고 새로운 윤리를 요청한다는 사실이다. 책임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사태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윤리적 범주를 의미한다.

<보 기>

- ㄱ. 일상적 인간관계에서는 호혜적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 ㄴ. 인간의 책임 범위는 지구 생태계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
- ㄷ.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인간에 대한 책임을 함축한다.
- ㄹ. 선한 결과가 예견되는 기술만이 도덕적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인공 지능 기술은 인간 노동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감소시킨다.
- ② 인공 지능 기술은 직업을 통한 인간의 자아실현 기회를 박탈한다.
- ③ 인공 지능 기술로 인간 노동이 필요한 직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 ④ 인공 지능 기술은 인간 노동 대부분을 자동화 기기로 대체할 수 있다.
- ⑤ 인공 지능 기술로 일자리는 줄어들어도 최소한의 인간 노동은 필요하다.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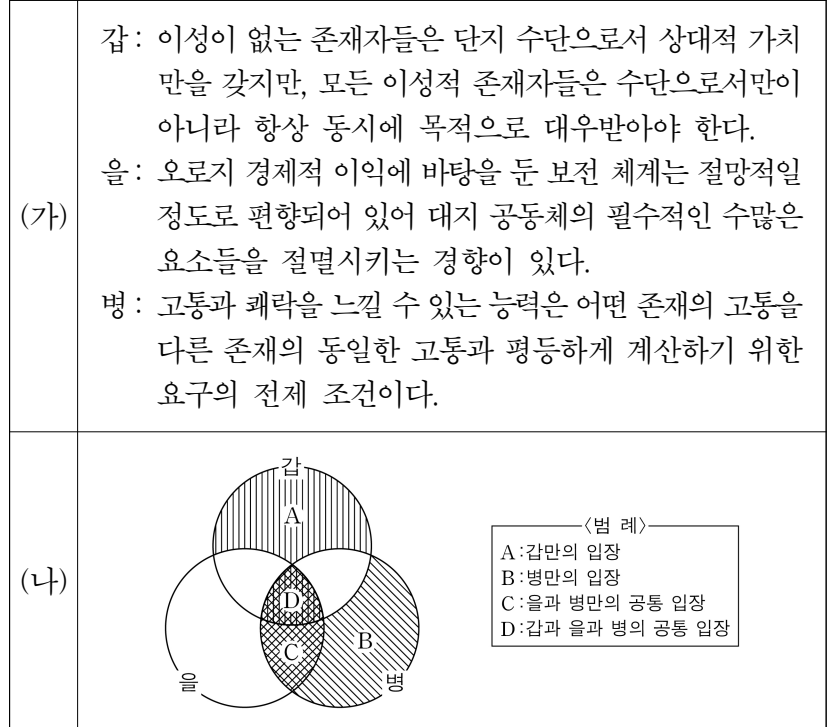
갑: 신은 우리들 각자가 인생의 온갖 활동을 하는 가운데 각자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존중할 것을 명한다. 그리고 누구도 경솔하게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종류의 생활 양식을 소명이라 이름 붙였다.  
 을: 선왕(先王)은 사람들 사이의 다툼으로 인한 혼란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예(禮)를 제정해 분별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하게 하여 물건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였다.

<보 기>

- ㄱ. 갑: 구원은 근면과 검소에 대해 주어지는 응분의 보상이다.
- ㄴ. 갑: 노동으로 얻은 부를 베푸는 선행은 신의 영광을 드러낸다.
- ㄷ. 을: 백성의 직분은 예보다 능력을 기준으로 맡겨져야 한다.
- ㄹ. 갑과 을: 노동을 통한 정당한 이익의 추구는 권장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A: 도덕적 행위 주체성은 도덕적 지위 결정의 유일한 요인이다.
- ㄴ. B: 동물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은 도덕적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다.
- ㄷ. C: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종차별주의는 부당하다.
- ㄹ. D: 자연물을 파괴하는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자연은 신이 세계를 창조하여 다스리는 기에이다. 이 자연을 인간의 기에로 모방하여 인공적 인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이 국가라고 불리는 위대한 리바이어던이다.  
 을: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목적은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 사회에서 확립된 법이다.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보 기>

- ㄱ. 갑: 절대 군주는 모든 인간의 사회 계약 체결과 이행을 강제한다.
- ㄴ. 갑: 사회 계약 이후에 군주와 시민은 자연법을 준수해야 한다.
- ㄷ. 을: 자연 상태는 어떠한 불평등도 없는 대체로 평화로운 상태이다.
- ㄹ. 갑과 을: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은 동일한 자연권을 가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그 도(道)를 행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를 행한다. 부귀가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빈천이 행위를 바꾸지 못하며, 위세와 무력이 지조를 꺾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을 대장부라 한다.  
 을: 예(禮)라는 것은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이 알팍해진 결과이며 혼란의 원인이다. 선부르게 내다보는 것은 도가 꾸며진 것이자 어리석음의 단초이다. 그러니 대장부는 중후함에 처하며 알팍한 곳에 거하지 않는다.

- ① 갑: 수오(羞惡)의 마음은 의로운 행위를 꾸준히 실천해야만 생겨난다.
- ② 갑: 오륜(五倫)의 참된 실천은 반드시 수기(修己)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 ③ 을: 이상적인 정치는 스스로 그러함(自然)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 ④ 을: 성인(聖人)의 도를 본받아 겸허하고 다툼 없는 덕을 지녀야 한다.
- ⑤ 갑과 을: 도를 따르는 사람은 곧 본성을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목적 없는 합목적성’이 되어 버린 계몽적 합리성은 자본주의 대중문화에서도 관찰된다. 대중문화의 지배자들은 대중문화가 장사일 뿐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이 사실을 자신들이 만든 저속한 문화 상품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활용한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욕구에 맞게 그 유형이 규격화된 대량생산물을 별 저항 없이 스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문화 산업의 기술이 사회에 대한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은 바로 경제적 강자의 권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언급되지 않는다. 다양한 문화 상품이 대중에게 제공되지만 이는 대량생산 법칙을 더 완벽하게 실현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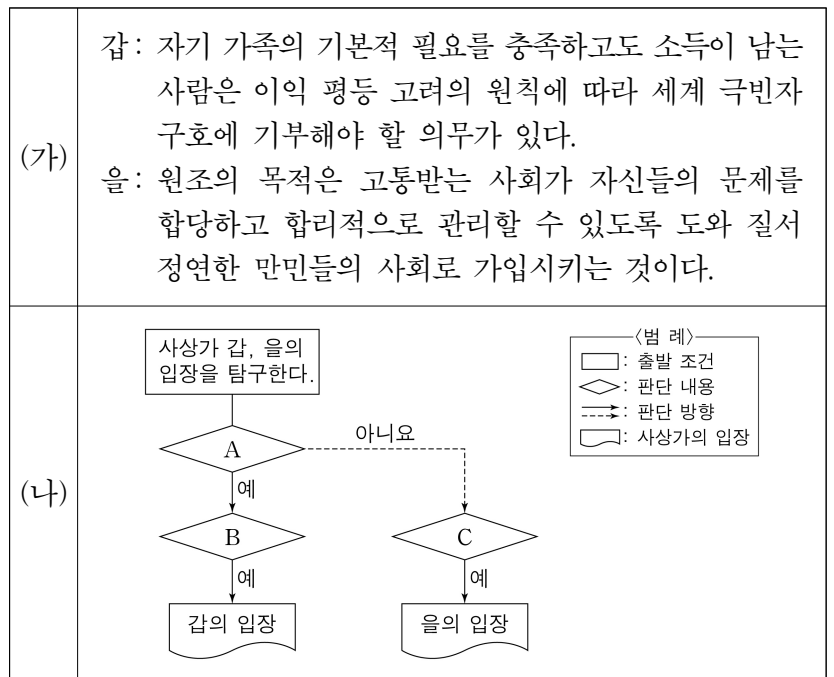
- ① 문화 산업은 대중문화가 상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 ② 문화 상품에 대한 대중의 선호는 상업적 전략에 대한 순응이다.
- ③ 문화 상품 소비자는 합리적으로 대중문화를 지배하는 주체이다.
- ④ 문화 상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는 표준화된 소비 양식과 상충한다.
- ⑤ 문화 상품 소비자는 대중문화의 본질을 간파하는 합리성을 발휘한다.

13.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신문 ○○○○년 ○○월 ○○일  
**칼럼**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옳을 수도 있다. 인간은 함께 노력해야만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 이러한 비판적 합리주의는 비판적 논증과 반박에 귀를 기울이며, 경험으로부터 배울 용의가 있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경험 세계에 관련될 수밖에 없는 과학적 명제의 경우, 이는 언제나 반박될 수 있어야 한다. 경험 과학 이론은 그 이론을 반증할 수 있는 실험 결과를 얻는다면 뒤집어질 수 있다. 이론의 과학성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반증 가능성이다. 이론에 대한 모든 관찰은 그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예측을 반증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 ① 실험 결과에 의해 예측이 반증된 경험 과학 이론은 거부된다.
- ② 논박이 불가능한 경험 과학적 가설만을 진리로 확정해야 한다.
- ③ 비판은 원천적으로 반증 불가능한 사실 명제에 근거해야 한다.
- ④ 진리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하다는 상대주의 관점을 수용해야 한다.
- ⑤ 오류임이 증명되지 않은 과학 이론은 반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14.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가. A: 절대 빈곤 감소는 원조의 정당화 조건이 될 수 있는가?  
 나. B: 원조 대상의 기본적 필요 충족은 원조 중단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다. B: 원조 대상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원조 주체의 처지 개선이 유보될 수 있는가?  
 르. C: 원조 대상국 내부의 불평등 감소를 원조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한가?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르    ⑤ 다, 르

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원초적 입장은 그 입장에서 도달된 기본적 합의가 공정함을 보장해주는 적절한 최초 상태이다. 바로 이 때문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명칭이 생겨난 것이다.  
 을: 국가에 관한 우리의 결론에 따르면 강요, 절도, 사기 등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최소한의 기능에 그 역할이 국한된 최소국가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보 기>  
 가. 갑: 무지의 베일 속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이다.  
 나. 갑: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다. 을: 오직 최소국가에서만 개인의 소유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  
 르. 갑과 을: 정의의 원칙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르    ⑤ 다, 르

# 4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1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공적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어떤 종류와 어느 정도의 형벌인가?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한다.</p> <p>을: 법은 공동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법을 어긴 범죄자는 더 이상 조국의 구성원이 아니고 조국과 전쟁을 벌이는 자이다.</p> <p>병: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엄격성을 지닌다. 종신 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p>
(나)	

- ① A: 사형은 살인범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응보적 형벌임을 간과한다.
- ② B: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를 실현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 ③ C와 E: 사형은 개인이 국가에 양도한 생명권을 국가가 침해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 ④ D: 사회 계약의 목적을 위해 모든 시민이 사형제에 동의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F: 형벌의 경중은 오직 범죄의 동기에 비례하여 결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17.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해야 할, 더 이상의 의도가 없는 선의지라는 개념은 이미 자연적인 건전한 지성에 내재해 있고, 가르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단지 계발될 필요만 있는 것이다.

<문제 상황>

A는 좋아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싶지만 용돈이 부족하다. A는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친구에게 “꼭 갚을게!”라고 약속하고 돈을 빌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약속을 어긴 사람은 목적으로 대우받아서 안 됨을 명심하세요.
- ② 약속 준수의 의무는 자기 행복에 대한 열망에 근거함을 명심하세요.
- ③ 거짓 약속은 친구의 인격을 존경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세요.
- ④ 약속은 친구와의 돈독한 정서적 유대를 위해 지켜야 함을 유념하세요.
- ⑤ 친구에게 무해하다면 거짓 약속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됨을 유념하세요.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할 때 어떤 개인적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우리 주장을 지지해 준다고 해서 그것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대신 시민 불복종은 공공적 정의관에 의거하게 된다.

- ① 소수자가 지닌 정의관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②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준법의 의무는 기본적 자유를 방어할 권리와 상충할 수 없다.
- ④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기본적 자유의 심각한 위반에 국한된다.
- ⑤ 양심적 거부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어떤 공민적 체제에 속해야 한다. 그런 체제에 귀속될 사람들에 관계되는 모든 법률상의 체제는 다음 중 하나이다. 첫째, 한 국가 안에서는 시민법에 따르는 체제이며 둘째, 국가 간 관계에서 국제법에 따르는 체제이고 셋째, 사람이나 국가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서 보편 상태의 시민으로 고려되는 한, 세계 시민법에 따르는 체제이다. 이러한 분류는 영원한 평화 이념에 걸맞은 필연적인 것이다.

- ① 시민법 체제가 한 국가의 대내적 정치 체도를 지정할 수는 없다.
- ② 세계 시민법은 이방인의 환대권과 영속적 체류권을 보장한다.
- ③ 전쟁 상태 극복을 위해서는 주권이 국제 국가로 귀속되어야 한다.
- ④ 영원한 평화를 위해 국가는 어떠한 국채도 발행해서는 안 된다.
- ⑤ 국가 간 적대 행위가 종식되어야 영원한 평화 실현이 가능하다.

20. 다음 대화에서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통일은 민족 내부의 경직된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신장합니다. 또한 분단 비용을 해소해 이를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 보장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 재원으로 전환합니다. 분단 상태에서는 이러한 편익이 불가능하므로 통일은 꼭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통일은 남북한 경제 통합으로 상호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분단 비용을 해소해 이를 한반도 전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재원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이러한 편익이 통일 비용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통일은 꼭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① 갑: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는 통일의 근거에 포함될 수 없다.
- ② 갑: 통일의 근거는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민족 통합 자체에 있다.
- ③ 을: 통일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통일의 당위성이 약화될 수는 없다.
- ④ 을: 통일 비용이 남북 경제 통합의 기대 효과를 초과할 가능성은 없다.
- ⑤ 갑과 을: 분단 비용 해소와 통일 편익을 통일의 근거로 고려해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